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 융합을 위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30.(목)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반도체·통신·소프트웨어(SW) 등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등 이(異)업종 간 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작년 11월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출범해, 그간 자동차를 넘어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참여기관도 8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하여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생태계를 마련하였다.

* 전장부품시스템분과, 융합보안분과, 서비스플랫폼분과, 모빌리티분과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며,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와 협력해 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Car2Car 컨소시엄 주관사

** 표준화 활동, 시범테스트, 공동연구(‘C-Roads Germany’ ‘Fraunhofer IVI, AISEC, 아헨 공대 IKA, 뮌헨 공대 등과 협력채널 구축 완료) 등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은희 (044-203-4312)
	미래모빌리티팀	담당자	사무관	윤인식 (044-203-4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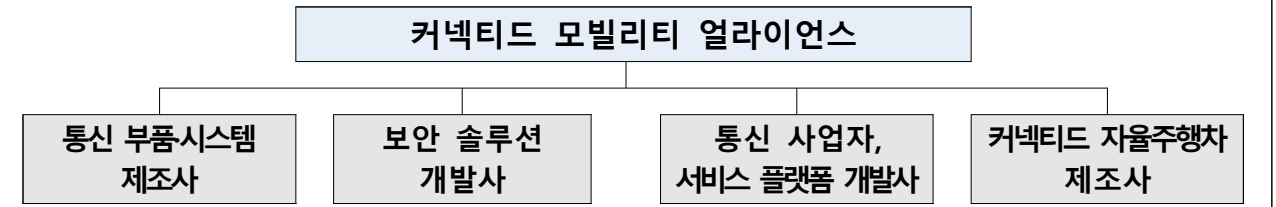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1.30(목) 14:00~15:00,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동차연구원
- (참석) 산업부(제조국장),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 LG전자, 카카오 모빌리티, SK셀더스, KT 등 관계자 250여명
- (행사내용) **개회식** 및 **심포지엄**
 - (개회식) **축사**, 얼라이언스 운영경과 및 계획 발표 등
 - (심포지엄) 커넥티드카 기술개발 동향 및 산업계 진흥 방향

< 얼라이언스 분과별 활동 분야 >

- 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 ①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②상용화 촉진을 위한 R&D 및 실증 지원 등

*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를 연결하는 개념



□ 세부일정

구분	시간		프로그램
(1부) 개회식	13:30~14:00	'30	- 등록
	14:00~14:20	'20	- 축사 및 개회사
	14:20~14:40	'20	- 얼라이언스 운영 현황 및 계획 발표 * 분과별 비전 및 운영 현황 보고
	14:40~15:10	'30	- C2C-CC 소개 및 운영 현황 발표(C2C CC 위원장)
	15:10~15:15	'5	- 내/외빈 기념 촬영
휴식	15:15~15:30	'15	- 휴식 및 네트워킹
(2부) 심포지엄	15:30~16:00	'30	- 국외 차량 보안 기술 개발 동향 (Fraunhofer AISEC)
	16:00~16:30	'30	-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동향 (LGCNS)
	16:30~17:00	'30	- 패널토론: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계 진흥 방향
	17:00~17:05	'5	- 폐회 선언 및 장내 정리